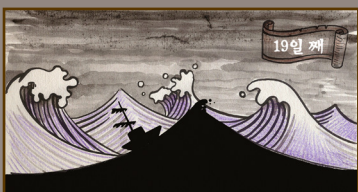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래요!



- 나레이션**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 바울 목사님은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로마로 가던 어느 날, 날씨가 좋지 않아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 바울** 바람을 보아하니 이번 항해는 매우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머물면서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선장** 아이 사람, 뭘 모르네~ 내 오랜 경험으로 말해줄까? 이 정도면 우리 배로 얼마든지 갈 수 있소. 바로 출항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 백부장** 선장 말만 믿겠소. 자 24604! 바다는 선장에게 맡기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 나레이션** 배는 다시 바다로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 해서
- 선장** WoWWW!!!!!! 폭풍이다! 엄청난 파도가 몰아친다! 모두들 꼭 잡으시오!
- 선원들** 우오오오!!! 왁 왁 선장님 이러다가!! 저희 다 토하다 으웁 죽겠습니다..!
- 나레이션** 엄청난 비바람에 배는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모두들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배는 폭풍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고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 죄수1** 아 이제 죽는건가? 바다에 빠져 죽나? 배고파서 죽나? 물고기 밥으로 죽나? 엄마..
- 죄수2** 아 그것보다 나.. 우오옥!! 이거 해도 너무 한다.. 우옥!! 이제 속이 뒤집혀서 죽겠어, 우옥!!
- 선원1** 하. 희망이 없군.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볼 수가 없으니 이제 진짜 죽는거구나.
- 나레이션** 모두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있을 때
- 바울** (힘들지만 당찬 목소리로)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어젯밤 저의 주인 되시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천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에게 가야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모두 무사히 로마에 갈 것이다.
- 바울**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 죄수1** 그 말 믿어도 되는 거죠?
- 나레이션** 바울의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진 19일째가 되었습니다. [19일!] 그때 드디어 배가 한 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배에서 내려 무사히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람들** 우와!! 내가 살았어!! 살았다 살았어!
- 선원1** 야야야야.. 그때 저 24604 아니아니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 선원2** 바울 선생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정말 계신가 봐~ 이제부터 저 바울 선생 말을 들어야겠어.



나레이션 죽을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바울 목사님의 말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섬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바울 여기가.. 뭘야쓰.. 아니 메로나.. 아니 멜리네.. 아아 멜리데섬!!

간수1 흠.. 저게 마을 추장네 집인가보네!!

나레이션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는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공공 앓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공공 아... 뜨거워.. 아 간지러워.. 아 뜨거워.. 이불 좀 치워.. 제발...

보블리오 아버지.. 흑흑... 이열치열이래요.. 좀 덮고 계세요.. 흑흑..

나레이션 이를 본 바울 목사님께서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아버지 아이고~ 시원해!! 시원하다고!!! 이거 뭐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

나레이션 이 소문을 듣게 된 다른 많은 환자들도 목사님께 찾아왔고, 목사님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환자1 바울 선생님.. 저는.. 맨날 배가 아파요.. 장이 약한 가봐요.

환자2 바울 선생님.. 저는 허리를 다쳤어요, 이젠 혼자 걷지도 못해요..

나레이션 멜리데 섬 사람들은 고마운 마음에 먹거리들이며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가득 실어주었습니다.

사람들 (다같이)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을 거예요~ 바이바이~

나레이션 바울목사님이 탄 배는 항해를 다시 시작하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로마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방을 얻어 2년 동안 지내셨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한명 한명 모두 만나셨고, 어떤 방해나 공격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바울 목사님은 이 로마에서 순교 당하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